One pick 위클리 핫이슈

남궁민이 MBC 새 금토드라마 '검은 태양'의 국가정보원 요원 역을 위해 10kg을 증량해 화제다. 사진제공 | MBC

17일 베일벗는 '검은태양' 근육맨 변신 남궁민 화제

배우 남궁민의 '변신'만으로도 화제를 모은 MBC 금토드라마 '검은 태양'이 드디어 베일을 벗는다.

17일 첫 방송하는 '검은 태양'은 국가정보원 최고의 현장요원이 동료들을 잃은 후 배신자를 색출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담은 첩보드라마이다. 2013년 히트작 KBS 2TV '아이리스' 시리즈를 연상하게 하는 정통 첩보물로 방송가 안팎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주연으로 나선 남궁민의 '몸매'가 방송 전부터 기대 요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는 동료들의 복수를 위해 조직에 복귀한 요원 역을 맡고 근육을 10kg이나 늘렸다.

남궁민은 자신의 '벌크 업' 노하우를 공개한다. 16일 온라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촬영 준비 과정, 드라마를 선택한 이유 등을 밝힐 예정이다. 박하선, 김지은과 연출자 김성용 PD도 무대에 올라 시청자들에게 시청 포인트를 전한다. 이경영, 장영남, 유오성 등 베테랑들도 총출동해 국가정보원의 다양한 임무를 재현해낸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안도영·유진한 기자

막내린 '펜트하우스 시즌3' 두 주역 유진(오윤희) & 김소연(천서진)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논란과 각종 이슈를 뒤로하고 '드디어' 끝났다. 10일 시즌3의 막을 내린 드라마는 지난해 10월 시즌1부터 줄곧 '막장 끝판왕'으로 불렸다. 시청자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지만, 시청률은 최고 29.2%(닐슨코리아)에 달했다. 김소연(41)과 유진(40)은 그 주역이다. 7일과 9일 각각 화상으로 만난 이들은 "도전을 마쳐 홀가분하다"며 환하게 웃었다.

유진

유진 "애착 넘어선 애증의 드라마"

"실제 나와 정반대 억척녀 오윤희 힘은 들어도 이런 재미는 처음 작품 통해 새도전 할 용기 얻어"

유진은 최근 마지막 촬영을 하면서 대본을 처음 손에 쥔 2019년 겨울을 떠올렸다. "1년5개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니"라는 소회를 느낄 겨를도 없이 "그때 (출연)안 한다고 했으면 어쩔 뻔했나" 안도했다. 그는 "이제야 말하지만 정말 자신이 없었다"는 털어놓았다.

"극중 억척스럽고 목표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오윤희는 저와 너무나 다른 인간이었어요. '못할 것 같다'고 했죠. 그러다 마음을 바꿨어요. 이렇게 극한의 감정 변화를 겪는 캐릭터는 다시 못 만날 것 같았거든요.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를 얻었어요."

실제 성격과 정반대의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했다. 극적인 장면을 표현하기도 힘든데 세 편의 시즌을 연달아 촬영하느라 "애착을 넘어 애증까지 느꼈다"며 웃었다.

"진짜 힘들었어요. 자극적인 장면도 많아서 '19금' 딱지가 몇 번 붙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는데 촬영을 거듭하면서 '이런 재미가 또 있네?' 싶었죠. 시청자들이 '김순옥 작가는 하나의 장르다'고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깨달았답니다."

아내를 위해 남편 기태영은 두 딸을 돌봤다. 올해 6살과 3살 된 로희·로린 자매에게는 "아직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부부는 서로 번갈아 가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제가 작품을 마쳤으니 남편이 좋은 캐릭터로 연기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때는 제가 육아에 집중해야죠. 저는 친구 같고 재미있는 엄마가 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요. 인내심이 많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하루하루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배우로서도 행복한 한때를 즐기고 있다. 두 딸이 연예인을 꿈꾼다면 주저 없이 지지해줄 수 있을 만큼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100%"이다.

"20여 년 전 처음 연기를 시작했을 땐 정말 아무 것도 몰랐어요. 결혼하고, 아이 엄마가 되면서 다양한 경험이 늘어나니 감정 이입의 폭이 더 넓어졌죠."

좋아하는 연기를 계속하고 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커 간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배우로서는 스릴러 같은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 싶어요. 인간 김유진의 목표는 거창하지 않아요. 가족 모두 건강하게, 큰 사고 없이 무난하게 사는 것이 꿈이죠. 엄마가 되어보니 더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하하!"

유지혜 기자

김소연 "연기열정 깨운 인생의 선물"

"노래·피아노·소리 꽥…모든게 도전 악녀 천서진 욕먹을 각오 했었는데 광고도 많이 찍고 아직 꿈만같아"

"제 헤어스타일 어때요? 아직 좀 어색하죠?"

인터뷰를 위해 화면 앞에 앉은 김소연의 모습이 확 달라졌다. 시즌1부터 길러온 긴 머리카락을 어깨 위까지 잘랐다. 시즌 내내 악행을 저지르다 감옥에 갇힌 '악녀' 천서진의 비참한 말로를 그리기 위해 촬영현장에서 직접 가위를 들었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후두암에 걸린 천서진의 마지막은 마음에 들어요. 딸을 멀리서 보다가 악행을 후회하면서 자살을 택하는 결말은 정말 슬펐어요.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쉽게 감정에 젖었죠. 촬영을 마치고 열흘이나 지났는데도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고생도 많이 해서 후련할 줄 알았는데. 하하하!"

드라마는 도전의 연속이었다. 유명 소프라노라는 설정 때문에 노래하며 피아노 치는 장면을 혹독하게 연습했고, 좀처럼 자신 없던 "소리를 꽥 지르는 연기"를 반복했다. 2000년 수많은 '안티팬'을 안긴 MBC '이브의 모든 것' 이후 21년 만에 도전한 악역이었다.

"악역의 후폭풍은 이미 겪어봐서 시작할 때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했어요. 행여나 사람들이 저를 욕하더라도 그것마저 칭찬으로 받아들이자 각오했죠. '아, 광고도 다 끊기겠구나' 싶었고요. 그런데 웬걸, 시청자들이 정말 좋아해주시고 광고도 많이 찍어 깜짝 놀랐어요. 지금의 인기가 믿기지 않아 얼떨떨해요. '이 순간에 취하지 말자'고 주입 중이에요."

남편 이상우는 든든한 지원군이 돼 줬다. 매일 대사를 맞춰주는 것도 모자라 드라마에도 특별출연했다. "가족만이 해줄 수 있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제 '멘탈(정신) 관리'까지 부단히 힘써줬죠. 덕분에 일상을 유지하는 법도 배워가고 있어요. 전에는 드라마 찍는 내내 감정을 유지하느라 친구도 잘 안 만났거든요. 드라마를 위해 머리카락을 자른다니까 남편뿐 아니라 시어머니께서도 '정말 멋있다'며 용기를 주셔서 과감하게 가위를 들 수 있었답니다."

첫 촬영부터 1년5개월의 대장정을 마치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영광의 순간"으로 남았다. 이를 터닝 포인트 삼아 더 도약하겠다는 욕심도 내고 있다.

"'펜트하우스' 직전까지는 별다른 포부가 없었어요. 활약할 무대가 점점 좁아질 것이란 생각을 했고, 거기에 안주하기까지 했죠. 그런 제게 큰 자극이 되어주었어요. 연기의 재미를 새롭게 느끼게 해준, 인생의 선물이에요."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김소연